

추도문

황우석과의 10년 전쟁

황상익†

생명윤리학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선생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때는 1995년 말로 기억합니다. 제가 의사협회의 “의사윤리선언” 전면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997년 2월 23일, 영국 로슬린 연구소의 이언 윌머트(Ian Wilmut) 팀이 그 전 해에 암컷 양을 복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생님은 바빠지셨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나는 일도 더 잦아졌습니다. 생명윤리학회 창립에 관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두 선생님의 손과 발과 입을 거쳤습니다.

“복제양 돌리” 탄생이 발표된 지 1년 뒤인 1998년 2월 19일 서울역 앞 대우재단 빌딩에서 교수, 연구자, 활동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생명윤리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은 연구뿐만 아니라 실천도 강조하셨습니다. 연구에 바탕을 둔 실천, 실천을 통해 사회적 의미가 확인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이회는 생명과학기술을 인간사회 및 생물권에 응용할 때 일어나는 철학적, 윤리적, 법적, 사회적, 경제적, 의학적, 환경적, 종교적, 인류학적 문제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hwangsi@snu.ac.kr

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학회 회칙 제2조는 전적으로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공교롭게도 학회 창립 1주년을 맞는 1999년 2월 19일, 황우석 팀은 세계 다섯 번째 복제동물로 암송아지 “영롱이”가 태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려하던 인간복제의 위험이 눈앞에 닥쳤다고 하시면서 생명복제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발의에 따라 3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학회 주최로 “생명복제에 대한 1999년도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참석자 23명과 학회의 이름으로 “생명복제에 관한 1999년 생명윤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생님은 “인간 개체를 복제하기 위한 모든 연구와 시술 반대”, “대통령 직속으로 생명윤리위원회 설치”, “전문연구기관 설치” 등 선언문에 만족하셨지만, 저와 김환석 교수 등은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선생님은 생명복제 연구와 관계있는 과학자들이 워크숍에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고 선언문에 서명한 점에 대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윤리에 관한 황우석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경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생명윤리를 자신의 비즈니스를 분식(粉飾)하는 전단지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조금 거칠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이 무렵부터 2006년 서울대 조사위원회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이 반윤리적이고 반학문적인 황우석 팀의 행각에 대해 조사·발표할 때까지 7년에 걸쳐 치열한 논란과 물밑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은 “황우석과의 10년 전쟁”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돌리” 탄생을 기점으로 잡은 계산일 터입니다.

“10년 전쟁” 기간 동안 선생님은 최일선에서, 또는 전방 바로 뒤 병참기지에서 실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리들을 지휘하셨습니다. 2004년부터는 제가 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지휘봉을 넘겨받았지만, 사소한 일도 선생님과 상의했습니다. 선생님은 새 집행부가 처리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선생님의 경륜과 성원이 필요했습니다. 2005년에 설치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우석은 어느덧 국가권력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 10월 23일과 2005년 7월 10일, 황우석 연구단의 줄기세포 팀장을 지냈다는 “제보자 K”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연락은 실제 만남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가 아직 결심을 굳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월 10일의 연락은 16일의 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K는 긴가민가했던 “줄기세포 사기”가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영롱이”도 가짜라고 했습니다. K는 한 달 앞서 MBC <PD수첩> 팀과 시민과학센터의 김병수 간사에게 제보했습니다. 저는 김 간사와 철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넉 달 뒤, <PD수첩>의 첫 보도 방송이 나갈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일절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만 보고했습니다. 선생님은 제보자의 용기를 칭찬하시면서도 신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사기”를 규명하는 것은 <PD수첩> 팀의 취재력에 달려 있겠지만, 더 중요한 점은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적인 측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싸움의 중심축은 학회라고 일깨우셨습니다. 선생님의 예견과 충언은 적중했고, 생명윤리학회 설립의 의의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10년 전쟁” 기간 동안 아픔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뜻을 같이한다고 여겼던 사람 중에서 이득 때문에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 생명윤리에 칼을 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후임 회장으로 염두에 두셨던 법학 교수는 황우석 팀의 비윤리성을 윤리로 포장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선생님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생님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았든 몰랐든 황우석 팀의 사기행각에 동조하고서는 형세가 뒤바뀌자 아무런 반성이나 해명조차 없이 황우석을 비난하는 교수와 기자들에 대해서는 분노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회장 임기를 마치면 생명윤리에 관한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잠자코 듣기만 하셨습니다. 제 역할과 인내력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선생님은 지인들의 배신과 경거망동 앞에서도 의연하셨습니다. 생애 끝까지 생명윤리학회 설립자와 최고 원로로서 학회 행사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진실과 정의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마다 망설임이나 꼼수가 없으셨습니다.
이해관계나 유불리와 친소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머뭇거릴 때면 독려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2006년 말, 저와 둘이 가진 송년 자리에서 “황우석과의 10년 전쟁”에서 우리 학회가 승리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천진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